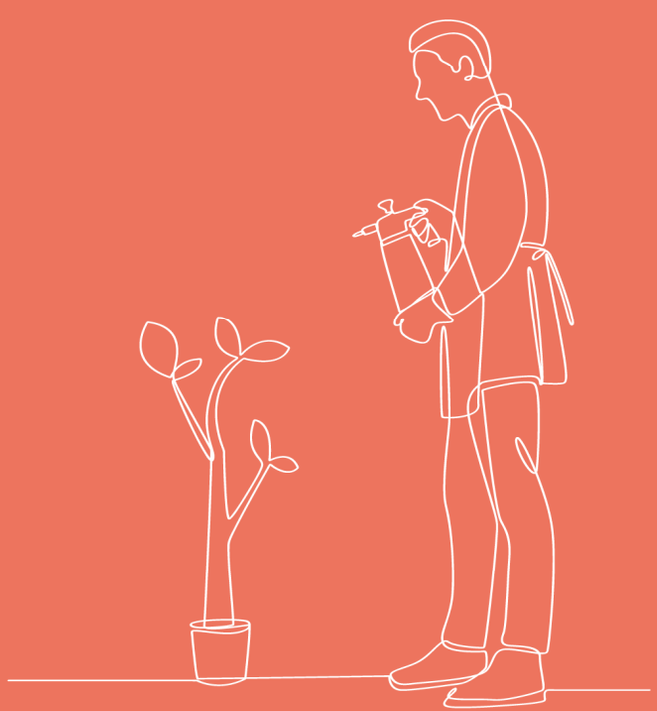
상상국어 임팩트 원

상상 이승모 상승선 택

上昇線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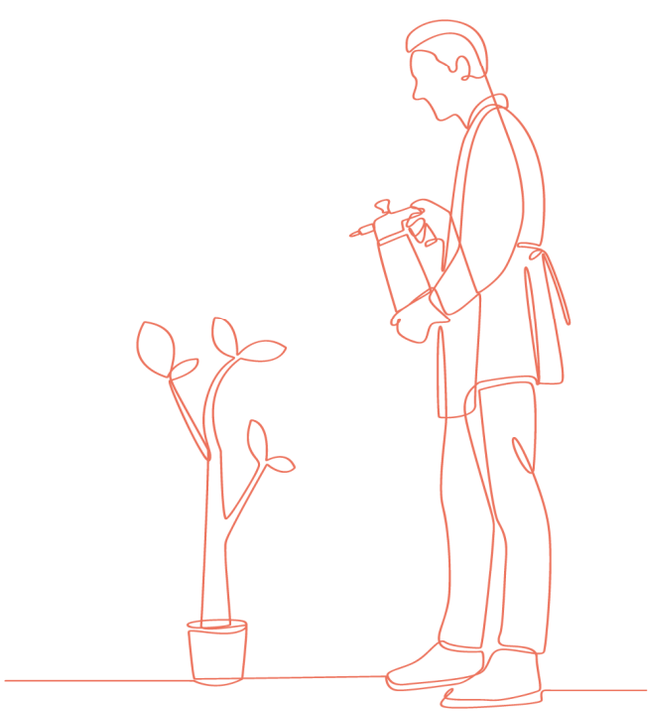
4-2

상상국어 임팩트 원

상상 이승모 상승선

上昇線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4-2

上昇線

상모택 상승선 이



4-2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상상 모의고사 임팩트 원 - 상승선]

시즌 4 제2차 모의고사

[선별 세트]
[31~34] 속문산육가, 백석정별곡



임팩트 원 해설지 활용법

'임팩트 원'은 '상상'과 '이승모T'가 생각하는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유의미한 세트, 내지는 되짚어볼 만한 세트를 선별한 것입니다. '상상' 역시 사설이기에, 전 문항을 모두 기출처럼 분석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가져가라는 의도로 만든 것입니다. 즉 모의고사를 풀고, 나름의 오답을 한 이후, 가볍게 읽어보면서 가져갈 것들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임팩트 원 해설지는 총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실전)

- 쉽게 말해 제가 실전에서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풀었던 방식과 사고를 위주로 설명합니다. 실전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설명하기에, 해설지의 사고와 미묘하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푼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듯합니다.~~(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잘 읽겠지요?)~~ 특히 본인이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여기서 얻어갈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02 |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사후적 학습)

- 실전과 사후적 학습은 항상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후적으로 공부할 때 챙겨갈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계 학습부터, 지문을 읽는 방식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정리가 됩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해?'라고 받아들이시면 이건 해설지의 의도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전에서 가능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것들은 꼭 사후적으로 공부하면 추후 학습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쓴 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03 | 임팩트 원은 해설 강의 역시 상상 국어 유튜브에 제공됩니다.

해설 강의와 겹치는 내용이 있겠으나, 해설 강의에서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을 이 해설지에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해설 강의는 간결하게 필요한 것들을 집중해서 말하는 성격이라면, 이것은 얻어갈 것을 싹 다 털어간다는 생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04 | 해설의 가독성과 재미를 위해 약간의 드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관성이 아닌 정성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

안녕하세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매주 두 개 내지 세 개씩 찍다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100일 남짓 남았다고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 민족은 100일이면 곰이 사람이 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사람이고요.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에서 임팩트 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선정은 고전시가입니다. 복합 없이 고전시가를 할 일이 없었는데, 오늘 고전시가를 선정함으로써 조금 더 고전시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전시가의 출제 목적은 '해석의 정확성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1차적 해석은 할 줄 알아야 하고, 그 구절에 부여한 의미까지 추론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학생들은 당연히 연계 공부를 하고 있겠지만, 특히 고전시가는 연계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하고, 그냥 현대어 풀이 줄줄이 읽지 마시고, 끊어가면서 일상적인 상황으로 납득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어승모 국어 유튜브 영상을 확인하세요.~~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려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설의 경우 〈보기〉가 구체적이고 친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전시가 역시 〈보기〉를 읽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을 수 있는데, 〈보기〉부터 읽을지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평가원에서는 〈보기〉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보기〉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파이널 1회에도 현대시 〈보기〉가 상당히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2회 역시 〈보기〉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경우도 많겠지만, 이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자칫 이렇게만 대비하다가 실전에서 당황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현대 문학은 보통 〈보기〉 좀 보고 들어가고, 고전은 굳이? 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건 제 생각일 뿐이고. 34번 〈보기〉는 (가)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물론 (나)도 그렇긴 한데 (나)는 연계니까요. 다만 〈보기〉를 먼저 읽든, 문제 풀 때 읽든 뭉개지 말고 차분하게 잘 읽어야 사고가 안 납니다. 이번에는 〈보기〉가 도움이 되니 먼저 봅시다.

>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궁극적으로는 타인과의 연대를 통해 늙음에 따른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려 하지만, 늙음을 대하는 태도는 상이하다. (가)의 화자는 늙어 감에도 세속적 욕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갈등을 겪는데, 이에 따른 비통한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얻는다. 한편 (나)의 화자는 세월의 흐름과 세속의 욕망에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는데, 이렇듯 순리에 따르는 자세를 통해 현재의 순간을 즐기겠다는 삶의 지향을 드러낸다.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구분할 수 있는 〈보기〉네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학생들은 차분히 읽기만 하세요.

공통점

타인과의 연대를 통해 늙음에 대한 부정적 정서 극복 의지

차이점

(가) 늙어 감에도 세속적 욕망에 대한 미련 → 비통한 심정 토로, 심리적 안정

(나) 세속적 욕망에 대한 초연한 태도 → 현재의 순간을 즐김 지향

(가)
평생에 민망(憫惘)한 사정을 상제(上帝)께 묻잡나이다
장원 급제(壯元及第)를 주는 듯하다 빼앗으십니까
지금(至今)*에 육아인(蓼莪人)*이 되어 가는 길이 어둡습니다

〈제1수〉

이 작품 일상적 상황으로 납득되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대부'를 귀여워하시면 고전시가가 납득이 잘 됩니다.(큐티 사대부) 얼마나 답답하면 옥황상제한테 물어보겠어요. "아니 왜 장원급제를 줄듯하다 안 주는 겁니까? 부모님께 불효하여 가는 길이 어둡단 말입니다." 이거잖아요. 이거 우리도 공감될 수 있지요. "아니 왜 국어 1등급을 줄 듯 말 듯 안 주는 겁니까? 국어만 나오면 되는데 국어가 안 나와서 가는 길이 어둡단 말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바로 납득 가능합니다.

상제께서 이르시기를 네 사정도 옳거니와
고금(古今) 인물이 다 같지 못하니
장원 급제와 수명(壽命)을 바꾸어 자손 번화를 보게 함이라

〈제2수〉

역시 너무 귀엽습니다. 상제가 대답해줍니다. "네 말이 맞기는 한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순 없지 않냐. 장원 급제와 수명을 바꾼 거란다. 너 오래 사는 게 그거랑 바꿔서 그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기〉랑 연관지으면 지금 화자는 늙었어요. 상제의 말을 빌리고는 있지만, 사실 본인 생각이겠지요. "장원 급제랑 수명을 바꿔서 내가 이렇게 오래사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말씀 삼가지 못하여 백발(白髮) 고수(孤囚)* 되었구나
본심(本心)을 돌아보건댄 벗 구할 뿐이로다
두어라 마음이 이러하니 몸 갇힘을 슬퍼하랴

〈제3수〉

자신의 탓으로 외로운 죄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본인의 본심은 친구가 필요했을 뿐이래요... 슬슬 짠해지네요. 마음이 이런데 몸 갇히는 걸 슬퍼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줄줄 써서 그렇지 이 모든 건 시험 때 1분도 안 걸려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고전시가 피지컬이 이 정도는 되어야지요.

청년(靑年)도 귀하거니와 백발도 더욱 어려우리
귀하고도 어려운 줄을 아느냐 모르느냐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모여 마시고 오래도록 깨지 말자

〈제6수〉

청년도 귀하지만, 노인도 훨씬 어려운 거랍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노소가 어울려 잘 지내보자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지요. 〈보기〉랑 연관지으면 심리적 안정을 느끼는 화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 최학령, 「속문산육가」 -

(나)를 잘해야 합니다. 연계잖아요. 다만 수특 연계와 겹치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중략〉 이후 5줄 정도가 겹치고 나머지는 전부 수특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라, 공부해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은일 가사, 즉 자연에서 은거하는 걸 지향하는 작품이기에 뻔한 클리셰 범벅입니다. 이 정도는 연계를 하지 않아도 대강의 내용이 잡혀야 될 정도로 익숙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신교의 백석정별곡은 신교라는 사람이 벼슬을 마치고 돌아와서 본인이 만든 백석정이라는 정자에서 은거하는 삶에 대한 지향을 읊은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
남아(男兒) 세상에 태어나 속절없이 늙어 가니
하올 일이 전혀 없어 명승지(名勝地)를 찾아보니
백석탄(白石灘) 돌아들어 풍경(風景)이 그지없다
속리산(俗離山) 문장대(文藏臺)는 눈앞에 펼쳐져 있고
십 리 주(十里洲) 만경파(萬頃波)는 좌우에 둘렀으니
지세(地勢)도 좋거니와 물색(物色)이 신기하고 기이하다
백옥(白玉) 같은 바위 위에 푸른 이끼 쓸어버리고
수간(數間) 채각(彩閣)을 물 가까운 곳에 지어 내니
동정호(洞庭湖) 악양루(岳陽樓)인들 이에서 더할손가

역시 나이가 들었다는 표현이 보입니다. 〈보기〉를 읽고 들어갔다면 보일 수밖에 없지요. 할 일이 없어서 명승지를 찾다보니 백석탄 돌아든 곳에 풍경이 말이 안 되나 봅니다. 속리산 문장대가 펼쳐져 있고, 만경파가 좌우에 둘러 있어서 지세도 좋고 풍경이 신기하고 기이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딱 백석정이라는 정자를 지었는데, 이게 동정호 악양루랑 같은 급이랍니다.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중략)

살구꽃과 복숭아꽃은 양 기슭에 피어 있고
낙하(落霞)와 고목(孤鶩)*은 아침과 저녁에 나란히 날아간다
소쇄(瀟灑)한 정자 속의 매화와 학으로 벗을 삼아
연하(煙霞)의 병이 들어 백 년을 지냈으니
있으나 없으나 세사(世事)도 나 몰라라

수특이랑 겹치는 부분입니다. 살구꽃, 복숭아꽃 즉 도화행화는 봄을 나타내는 계절어라고 바로 치환되어야 합니다. 자연에서 즐기면서 지내다보니라고 퉁쳐도 될 것 같습니다. 연하의 병이 들어 = 연하고질 = 자연 사랑하는 병이라는 것 정도는 아셔야겠고. 암튼 자연이 너무 좋아서 즐기면서 지내다보니 세상사에 관심이 없어요.

저근듯 잠들어 꿈 깨어 일어나 앉아
소나무 바람에 모자를 벗고 방랑하고 배회하니
원옹(園翁)과 계우(溪友)*는 옛 약속을 잊어 있고
전나귀에 술을 싣고 날 찾아오는구나
한 잔 먹은 후에 또 한 잔 부어 내어
꽃 꺾어 산(算) 놓고 진취(盡醉)토록 노니오니
이 밖의 세상 영욕은 뜬구름만 여기노라

잠깐 잠이 들었고 꿈 깨서 앉았다가 방랑하고 배회도 하고 했나봐요. 자연에서 사는 시골 사람들이 술을 싣고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술 갖고 오면 뭐해야겠어요. 마셔야겠지요. 이렇게 즐거우니, 세상 영욕은 다 뜬구름과 같다고 합니다. 자연친화! 끝!

– 신교, 「백석정별곡」 –

원래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에 넣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왕 공부한 김에 바로 봤으면 좋겠어서, 백석정별곡 수특 부분을 바로 넣어 드립니다. 바로 연계 털어버리시면 좋을 듯!

붉은 난간에 기대앉아 원근을 바라보니
옥계산 밝은 달은 은촉이 되어 있고
석봉의 가는 구름 취장이 되었구나
사탄*의 노랫소리 고기 낚는 늙은이오
화평에 피리 소리 소 먹이는 아이로다
지담*에 떴는 배는 일엽(一葉)이 가볍고
물결에 비친 다리 반공(半空)에 무지개로다
백암*에 섰는 단풍 금병(金房)을 둘러 있고
취벽의 늙은 솔은 사시에 푸르렀다
석양이 고개에 걸려 만학(萬藝)이 한 빛일 때
청려장 손에 들고 돌길로 돌아가니
철쭉과 살구꽃은 바람에 흩날리고
둔덕 위의 버들가지 냇가에 푸르렀다
일흥을 못 이기어 낚대를 비껴들고
이끼 낀 돌에 앉아 벽담을 굽어보니
은린옥척은 경면(鏡面)에 뛰노는고
낚싯줄에 오른 고기 난간 위에 올려 두고
비늘을 긁어내어 넓은 돌에 회 쳐 놓고
연잎에 빚은 술을 아이에게 지게 하여
표주박에 가득 부어 반취하여 누웠으니
공명을 다 잊으니 부귀인들 부러우랴
홍진의 벗님네야 이 생애 웃지 마오
일신이 한가하여 고요하게 거니니
화평한 풍미를 누가 아니 부러워하리
삼척오동 거문고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유수 고산을 줄줄이 희롱하며
맑은 노래 불러내어 묘한 곡조를 화답하니
공중에 떴는 소리 신선이 노니는 듯
삼신산 어디인가 무릉도원 여기로다
살구꽃과 복숭아꽃은 양 기슭에 피어 있고
낙하*와 외로운 따오기는 조모(朝募)에 제비하다*
소쇄*한 정자 속의 매학으로 벗을 삼아
연하(煙霞)의 병이 들어 백 년을 지내오니
있으나 없으나 세사(世事)도 나 몰라라

*사탄: 모래사장가의 여울. 또는 모래가 깔린 여울.
*지담: 향기로운 풀이 피어 있는 맑은 연못.
*백암: 흰 바위.
*낙하: 낮게 드리운 저녁노을.
*제비하다: 나란히 날다.
*소쇄: 맑고 시원한 모양.

붉은빛 난간에 기대앉아 멀고 가까운 곳의 경치를 굽어보니,
옥계산 위로 뜬 밝은 달은 은빛 촛불인 양 환하고,
바위 봉우리 곁을 지나는 옅은 구름은 푸르른 휘장이 되었네.
모래톱 여울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는 낚시하는 노인이요,
화평 들판에서 울리는 피리 소리는 소를 치는 아이로다.
맑은 못 위에 떠 있는 배는 하나의 나뭇잎처럼 가뿐하고,
물결 위로 어리는 다리 그림자는 허공에 걸린 무지개 같구나.
백암산에 물든 단풍나무는 황금빛 병풍을 두른 듯하고,
푸른빛 절벽에 솟은 늙은 소나무는 사시사철 푸르름을 간직했네.
해질녘 석양이 고개에 걸려 온 골짜기가 붉게 물들 무렵
명아주 지팡이를 짚고서 돌길을 따라 돌아가니,
철쭉꽃과 살구꽃이 바람결에 흩날리고
언덕 위 수양버들 가지는 시냇가에서 푸르다.
차오르는 흥을 주체 못해 낚싯대를 비스듬히 들고,
푸른 이끼 낀 돌 위에 앉아 투명한 연못물을 내려다보니,
거울처럼 맑은 수면 위로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큰 고기들이 뛰어논다.
낚싯대에 낚여 올라온 물고기를 난간 위에 놓아두고,
비늘을 벗겨내어 널찍한 바위 위에서 회를 떠 놓고는,
연잎 향 가득히 빚은 술을 아이에게 짊어지게 하여,
조롱박 가득 따라 마시고 한껏 취해 누워있으니,
세속의 공명을 까맣게 잊었거늘 부귀영화가 부러울쏘냐.
속세의 사람들아, 나의 이런 삶을 비웃지 말아라.
이 한 몸 한가로워 고즈넉하게 거닐고 있으니,
이토록 평화로운 풍류를 그 누군들 부러워하지 않겠는가.
커다란 오동나무 거문고를 무릎 위에 얹어두고,
'유수'와 '고산'의 명곡을 연달아 뜯어내며,
청아한 노랫가락으로 오묘한 곡조에 맞춰 부르니,
허공에 맴도는 그 소리가 신선들이 노니는 것 같구나.
전설 속 삼신산이 어디인가, 무릉도원이 바로 이곳이로다.
살구꽃과 복숭아꽃은 시냇가 양편 기슭에 만발해 있고,
떨어지는 노을빛과 외로운 따오기는 아침저녁으로 짝지어 날아다닌다.
맑고 시원한 정자 안에서 매화와 학을 벗으로 삼고서,
자연을 깊이 사랑하는 고질병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니,
재물의 유무나 번잡한 세상일 따위는 내 알 바가 아니로다.

31.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답은 아주 선명하죠. 확신만 있다면 시간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1번이 답일 땐 더 강한 확신이 필요하기에, 다른 걸 지우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① (가)는 (나)와 달리,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사실 손가락 걸어도 될 정도로 명확합니다. 옥황상제라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했고요. 비통한 심정을 토로한 후, 마음이 안정되어가는 과정을 대놓고 보여 주죠. 딸깍!

② (나)는 (가)와 달리, 대조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이중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시종일관 자연 친화입니다. 자연 너무 좋아서 병 걸렸다는데요. '맥락'

③ (가)와 (나)는 모두, 반복적 호명을 통해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 이건 찾으면 되는데, 찾기 귀찮으시면 넘겨도 됩니다. 사실 반복적 호명은 그냥 있으면 무조건 티가 납니다. 반복된 건 중요한 대상일 거고, 보통 이런 경우 제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역동적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 전 이거 안 따졌습니다. 아니 둘 다 일단 화자가 늙었다면서요. 아무래도 역동적 면모가 강조되긴 어렵겠지요. 물론 디테일하게 따지면 (나) 작품에서 자연 풍경 제시하는 곳에서 역동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바로 쳐버렸어요. 역동적 면모를 보여주는 게 초점이 아니니까. 참고로 역동적 = 다이나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

- 네. 딸깍. 심리적 안정을 얻었고, 자연에서 신났습니다. 악화는 무슨.

32.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잘 냈다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해석의 정확성 판단에 따라 뭉개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출제자의 의도가 드러나죠.** 쉽게 말해 텍스트 잘 보고 따져야지 혼자 뇌피셜 써서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의도가 드러난 답 선지예요. 다만, 돌아갈 자리가 많아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요즘 이런 문제 많이 나오니, 시간에 쫓긴다고 해도 반드시 돌아가서 정확히 따지셔야 합니다.** 답 선지만 보겠습니다.

④ 〈제3수〉의 초장에서는, 〈제2수〉의 화자가 당부한 말을 지키지 못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 2수의 화자는 상제입니다. 상제가 달래주죠. 네 말도 맞는데, 급제랑 수명이랑 바꾼 것임. 그래서 너 오래 사는 거야. 이런 식이죠. 화자가 당부한 말이 없어요. 3수의 초장에서 '내 말씀 삼가지 못하여 백발의 외로운 죄수가 되었구나.'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뇌피셜로, "상제가 뭐하라고 했는데 안 지켜서 죄수가 됐단 얘기군. 벌 받은 거군!"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33.

해석의 정확성 판단이 점점 디테일해 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따질 수 있어야 돼요. 적당히 뭉개면 뭉개집니다.

① ㉠은 '속리산 문장대'와 '십 리 주 만경파'를 포함한 경관으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지향을 부각한다.

- 화자가 명승지를 찾아다녔고, 그곳이 지금 백석정을 지은 곳이겠지요. 그러니까 뭐 속리산 문장대와 만경파를 포함한 경관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얘네들도 명승지죠. 명승지는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만,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말에서 거슬릴 필요가 있어요. 이미 여기는 완벽한데, 심지어 더 좋은 세계도 아니고 더 넓은 세계 가서 뭐 하게요. 이겁니다. "선생님 명승지를 찾다가 백석탄을 간 거니까, 명승지 자체에는 아직 문장대와 만경파가 포함된 건 아니지 않나요?"라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사건의 선후로 보는 거죠.) 굳이 따질 필요도 없고, 다른 것이 선명하니. 무엇보다 화자가 이곳을 명승지라고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명승지 찾다가 온 게 여기다! 여기도 명승지니까 문장대와 만경파가 포함된 공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② ㉡은 '바위' 위에 존재하는 대상으로, ~~주변 대상과 조화를 이루어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상징한다.~~

- 네. 이끼를 쓸어버리고 정자를 지은 겁니다. 이끼와 조화를 이룬 것 같지는 않네요.

③ ㉢은 '동정호 악양루'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곳으로, 자신이 감상하고 있는 풍경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낸다.

- 답은 참 깔끔합니다. 너무 익숙한 클리셰죠. 관동별곡에서도 '불정대에 올라가니' / '이적선이 있어 다시 의논하게 되면 / 여산이 여기보다 낫다고는 말 못할 것이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얘가 답입니다. 딸깍!

④ ㉣은 '세사'를 잊게 하는 존재로, ~~'낙하와 고목'과 더불어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풍경을 보여 준다.~~

- 살구꽃과 복숭아 꽃은 계절어가 맞습니다. 봄! 그러니까 계절 변화에 조응하는 풍경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낙하와 고목'은 아침과 저녁에 날아가는 거니까, 하루의 시간 변화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계절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⑤ ㉤은 '옛 약속'을 환기하는 것으로, ~~과거에 대해 향수를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강조한다.~~

- 맥락! 이 작품과 관련 없는 소리입니다.

34.

해석의 정확성이 점점 올라갑니다. 사실 거슬리는 선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결국 답의 선명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고민되더라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논리적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일단 이 문제 갖고 얘기하려면, 1번, 2번은 안 됩니다. 그냥 이건 당연해야 하는 거고. 선지 세 개만 보겠습니다.

③ (가)에서 '마음이 이러하'다는 것은 자신의 과오를 떠올리며 자책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에서 '뜬구름만 여기노라'는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화자가 보이는 달관의 자세를 부각하는군.

-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해석을 꽤 정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판단할 때는 선명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요. 꽤 그럴 듯하거든요. 일단 지문을 돌아가봅시다.

> 내 말씀 삼가지 못하여 백발(白髮) 고수(孤囚)* 되었구나
> 본심(本心)을 돌아보건댄 벗 구할 뿐이로다
> 두어라 마음이 이러하니 몸 갇힘을 슬퍼하랴

- 내가 말을 삼가지 못해서 늙고 외로운 죄수가 되었구나. 내 마음을 돌아보면 난 친구가 필요했을 뿐이었어. 마음이 이런데, 몸 갇힌 걸 슬퍼하겠어? 슬퍼하지 않을 거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말을 삼가지 못함 = 과오 이렇게 연결하면, 심지어 외로운 죄수라는 표현도 나오니까, 엇! 자책인가 이럴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러니까 항상 지문 맥락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단어에 꽂히는 게 문학에서는 가장 위험합니다. 마음이 이러하다는 건 친구가 필요하다는 걸 거고, 몸 갇힌 걸 슬퍼하지 않겠다는 말이니, 적어도 자책은 아닌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이 작품 자체가 자신의 과오에 대한 자책이라기보다는 나이가 들어가는데 세속적 욕망에 대한 미련은 남고 그래서 그 마음 쏟아냈더니 마음 편해졌다 이런 맥락이지요. 다만 3번 선지의 경우, 말씀 삼가지 못하여, 고수 이런 말에 꽂히면 그럴듯해지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답 선지의 선명도가 떨어지는 기분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얘를 고르거나, 아니면 다른 걸 지울 수 있어야겠지요.

④ (가)에서 '백발도 더욱 어려우리'는 늙음을 수용해야 한다는 화자의 반응을, (나)에서 '연하의 병이 들어'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화자의 삶을 부각하는군.

- 사실관계 판단입니다. 돌아가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청년도 귀하거니와 백발도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즉 청년도, 노인도 모두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후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화자 본인이 마음이 많이 안정됨을 알 수 있고요. 즉 늙음을 수용해야 한다는 화자의 생각은 적절합니다. 청년도 귀하지만 노인도 어려운 거라고 하고 있으니, 노인도 귀하게 생각해달라는 거니까요. (나)는 따질 것도 없고요.

⑤ (가)에서 '다 모여 마시고'와 (나)에서 '한 잔 먹은 후에 또 한 잔 부어 내어'는 모두, 화자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늙음에 따른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려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 이 선지가 좀 거슬릴 순 있습니다. 이건 사실 EBS 연계를 한 사람이면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나)가 늙음에 따른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려 하는 작품이냐! 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거든요. 사실 백석정별곡은 자연에서 은거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즉 일반적인 자연 친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늙음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이 작품에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저근듯 잠들어 꿈 깨어 일어나 앉아
소나무 바람에 모자를 벗고 방랑하고 배회하니
원옹(園翁)과 계우(溪友)*는 옛 약속을 잊어 있고
전나귀에 술을 싣고 날 찾아오는구나
한 잔 먹은 후에 또 한 잔 부어 내어
꽃 꺾어 산(算) 놓고 진취(盡醉)토록 노니오니
이 밖의 세상 영욕은 뜬구름만 여기노라

- 이 장면은 자연에 묻힌 사람들이 와서 같이 술 마시는 거고, 그러면서 현재의 순간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 자체가 늙음에 따른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려 하는 것이냐는 게 딱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결론! 이 문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3번 선지는 해석이 쉽지 않아 헷갈릴 수 있고, 5번 선지는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둘 사이에서 고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5번 선지의 경우 〈보기〉에서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늙음에 따른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려 한다는 말이 있으니, 그렇다고 봐줘야 할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작품을 통해 짐작할 수 없어도, 〈보기〉에서 이렇다고 정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3번 선지를 선명하게 골라주면 좋겠지만, 안 되면 5번이라도 소거하는 것으로 답을 골라야 할 겁니다.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최고의 해설을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흘러가다보면 내년 겨울엔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만 알고 싶은 강의에서 누구나 알고 싶은 강의가 될 때까지.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上昇線

상상 이승모 선택

이 책의 저작권은 (주)이매진C&E의 소유이며,
허락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상상국어평가연구소